

人間을 위한  
School of Computing

최광무

2010. 1. 8

ROSAEC Center workshop

# 과학과 인간

- 인문사회과학우선 vs 과학공학우선
- 대학 2장
  - 格物致知 誠意正心(격물치지 성의정심)
  - 修身濟家 治國平天下(수신제가 치국평천하)
- 격물치지 과학공학의 세계
- 성의정심 인간(인문사회)의 세계
- 격물치지 성의정심
  - 세상 무서운 줄 알고, 사람 귀한 줄 알아라
  - 선 과학, 후 인문사회
- 이공계 전공자중 사회 지도자가 더 많이 나와야

#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사람들

- 1998 공대기피현상
  - KAIST 공학장, 산자부 국장, Me
- 1960-70
  - 공돌이 공순이
  - 서독 파견 광부, 간호사, 월남파병, 중동건설
- 1980-90
  - Engineer
  - 포항제철, 삼성
- 2000-2010
  - 문화
  - KAIST School of Computing

#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

- 군사강국을 원하지 않는다
  - 군사력은 나라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.
- 경제강국도 원하지 않는다
  - 경제력은 먹고 살 정도면 충분하다.
- 과학강국도 원하지 않는다
  - 과학은 이미 충분하다.
- 문화강국이기를 원한다
  - 사해동포에게 도움을 준다
  - 문화는 베풀기만 하지 빼앗지 아니한다.
  - 21c의 새로운 패러다임

# School of Computing

- School
  - Bio Computing
  - Culture Technology
  - 지식 공학
  - Web. Science
- 모든 사람이 Software(computing)를 한다고 한다.
- 그러면 전산학과는 무엇을 하는가?

# CMU

- 다양한 전공을 허락
  - 강력한(?) Dept. of CS
- Win-win model
  - 학과는 전공에 잘 교육된 학생을 제공
  - 전공은 학과에 돈을 되돌려 준다
- 전공의 설치가 매우 자유롭다
  - 혼자 힘으로 살아 남으면 된다.
  - 자본주의 모델
- 강력한 CS

# 바뀌는 세상

- 알빈 토플러
  - 제삼의 물결(The third wave)
  - 제3의 혁명
    - 소품종 다량 생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업(제2)혁명
    - 다품종 소량 생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보(제3)혁명(???)
- 공대중심의 시대는 가고
- 문화 융합 혹은 인간 중심의 시대로

# 국내 전산학도의 역할

- 1970-80년대
  - Computer HW/SW의 소개
  - Venture들의 모태
    - QNIX, future, handy soft., ...
  - 한국의 IT를 선도
- 1990-2010
  - 국내 IT 기술 안정화
- 2020
  - School of computing, 인간을 위한 computing
  - 세계의 IT를 선도

# Why 2010

- 天地人
- 천시
  - 그 동안 sw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왔다
  - Software crisis(SE, AI)
  - 삼성의 핸드폰
- 지시
  -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
  - S.E. Blue spec. P.L. 등등
- 인시
  - 많은 사람들이 IT에

# 발상의 전환

- 공학 중심에서 사람(문화/인문)중심으로
  - 그러나 강한 CS 전공은 유지
- 인문계 학생/교수의 수용
- Existing 모델과는 전혀 다른 학과
- ???
  - 여러분의 몫